

가정 예배 모범

- 2021_07_11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7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매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모든 상황 속에서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야고보서 5장 13-20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야고보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와 즐거울 때에 각각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13절)

야고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와 믿음을 권면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슬퍼하고 불평하며 때로 분노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난 받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반대로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성도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또 다른 형태인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고난 앞에서도 기쁜 순간에도 늘 기도하는 가족이 되도록 서로 권면합시다.

2) 야고보는 공동체 중 질병이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14-15절)

야고보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상처를 치료하고 보호하기 위해 올리브유와 같은 기름을 약품으로 바르고는 했습니다. 또 야고보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특히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질병이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은 사랑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마땅히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연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보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나누어봅시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